

한국 야구 첫 경험 위즈덤 “기분좋은 부담감”



**KIA 타이거즈
스프링캠프**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제대로 한국 야구를 경험했다.

위즈덤은 27일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연습경기를 통해 KIA 타자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위즈덤은 4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장해 LG의 새 외국인 투수 요니 치리노스를 마주했다.

2회 선두타자로 나와 첫 타석을 맞은 위즈덤은 시원한 스윙은 선보였지만 LG 주전 유격수 오지환의 좋은 수비에 막혀 득아웃으로 돌아가야 했다.

위즈덤은 4회 1사 2루에서 두 번째 타석을 맞았다.

이번에는 LG 좌완 이우찬을 상대한 위즈덤은 풀 카운트에서 방망이를 휘둘렀고, 바운드 된 공은 3루수와 유격수 사이를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오지환이 등장해 공을 잡아냈고 안타성 타구는 병살타가 됐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유격수의 수준 높은 수비를 경험한 위즈덤은 “좋은 플레이였다”며 오지환의 호수비에 찬사를 보낸 뒤 “시즌 중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람들을 웃게 했다.

KIA에 합류한 뒤 인상적인 타자로 김도영과 나성범의 이름을 언급했던 위즈덤은 이날 김도영과 처음 나란히 타석에 서기도 했다. 김도영은 이날 3번 타자 겸 3루수로 첫 실전에 나섰다.

시범경기에 맞춰 실전에 돌입할 예정인 나성범은 관중석에서 이들의 플레이를 지켜봤다.

새로운 리그에서의 첫 실전은 빅리그에서 88개의 홈런을 날렸던 위즈덤에게도 긴장되는 무대였다.

LG와 연습경기 4번 타자·1루수 수비하다 주자와 ‘아찔한 충돌’ 상대팀 호수비에는 ‘엄지 척’ 캠프 참관단 열띤 응원에 ‘업’

위즈덤은 “오늘 많이 떨렸다. 동료들이 용기를 주고 함께 하니 기분이 좋았다. 앞으로의 게임이 기대된다”고 웃었다.

긴장감 때문인지 위즈덤은 수비에서 아쉬운 장면도 보였다.

위즈덤은 3회 수비 때 홍창기의 땅볼 타구를 몸으로 막아낸 뒤 타자주자와 충돌하는 아찔한 장면을 연출했다.

“괜찮다”며 몸상태를 이야기한 위즈덤은 “처음이다 보니까 쉬운 그라운드 땅볼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했다.

긴장감 속에 처음 KBO리그 경기를 소화한 그는 경기가 끝난 뒤에도 새로운 경험을 했다.

이날 KIA는 경기 내내 수비에서 아쉬운 장면들을 연출했다. 결국 이범호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선수단 미팅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오랜 시간 목소리를 높였다.

위즈덤은 첫 실전에서 상대 호수비에 아쉬움을 삼키고, 수비 실수로 탄식을 했고, 이례적인 긴 미팅까지 소화했다.

길었던 하루를 보낸 위즈덤은 KBO 야구 문화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KIA와 LG 캠프 참관단이 경기장을 찾아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KBO의 응원 문화를 기대하고 있는 위즈덤에게는 흥미로운 장면이 됐다.

언어의 장벽이 있지만 위즈덤은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워밍’으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위즈덤은 “언어적인 것이 어렵지만 오픈 마인드로 잘 적응하고 있다. 팀원들과 박우진 통역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며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게 재미있



KIA 새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27일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LG와의 연습경기에서 홍창기와 충돌한 뒤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있다.

다. KBO에서 댄 선수들에게 생활 방식, 먹는 것, 게임하는 방식 등을 많이 들었다. 가족들도 같이 한국에 오는데 많은 기대가 된다. 팬들도 기다려진다고 이야기했다.

‘홈런’에 대한 기대감도 이야기했다. 그는 “홈런을 많이치고 싶다. 팀도 그 부분을 기

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홈런을 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존에 들어오는 공들을 잘 쳐서 담장을 넘기겠다”며 “많은 선수가 홈런존에 대해 이야기해줬다. 외야 왼쪽에도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차를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설치해달라고 바라고 있다(웃음). 홈런존 차를 가져갈 수 있게 노력하고

시도하겠다.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재치 있는 입담을 보여줬다.

위즈덤은 “부담감이 있지만 좋은 부담감인 것 같다. 그런 긴장감과 부담감을 즐기고 있다. 이게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글=사진=wool@kwangju.co.kr

“1사 만루서 병살 처리...생각대로 됐다”

‘루키’ 김태형 LG전 등판

신인답지 않은 침착함 돋보여

“여유 갖고 내 템포로 던질 것”

‘아기 호랑이’ 김태형이 “생각대로 됐다”면서도 “아쉽다”고 두 번째 실전을 이야기했다.

KIA 타이거즈의 2025 루키 김태형은 27일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등판했다.

김도형과 황동하에 이어 6회 모습을 드러낸 김태형은 첫 타자 홍창기에게 볼넷을 내줬다. 신민재를 상대로도 볼넷을 허용하면서 무사 1·2루. 김태형은 김성진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원아웃은 만들었지만 이주현에게 3루 내야안타를 내주면서 1사 만루에 몰렸다.

신인 투수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김태형은 직접 남은 아웃카운트를 처리하면서 실점 위기를 지웠다.

김태형은 최원영의 투수 앞 땅볼을 잡아 침착하게 홈으로 송구해 투아웃을 만들었다. 이어 포수 김태군이 1루로 공을 연결하면서 이날이 마무리됐다.

신인답지 않은 침착함을 보여준 김태형은 “땅볼이다” 생각하고 더블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PFP(Pitchers Fielding Practice)에 자신 있어서 공이 오자마자 ‘됐다’ 생각했다. 주자의 의식은 안 됐다. 마운드에서는 별생각이 없어진다고 “볼넷도 주고 주자가 나가서 아쉽지만 전 경기와는 다르게 막아보자는 생각으로 했는데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했다.

김태형은 지난 22일 히로시마와의 연습경기를 통해 프로 첫 연습경기에 나섰다. 이날 2개의 안타 2개의 볼넷을 허용하면서 3실점을 했다.

김태형은 “볼볼 하지 않고 승부하러 했던 것은 좋았다. 꼭 막고 싶었다”면서도 “볼넷이 안 좋았다. 처음에 홍창기 선배님을 상대했다. LG 1번 타자이기도 해서 한번 잡아보자는 마음으로 던졌는데 볼넷을 줘서 아쉬웠다. 크게 존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조금씩 폼이 틀려져서 벗어나던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프로를 경험하고 있는 김태형은 다음 경기에



KIA ‘루키’ 김태형이 27일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LG와의 연습경기에서 팀의 3번째 투수로 나와 공을 던지고 있다.

서는 ‘내 것’을 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경기 전에는 재미있는데, 던지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진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한 김태형은 “미국에서 한 걸 다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더 끌어올려야 할 것 같다.

변화구도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다. 커브를 특히 신경 쓰겠다. 시합 때 긴장하고 급한 것 같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내 템포로 던지려고 노력하겠다”고 다음 등판을 기대했다.

/글=사진=wool@kwangju.co.kr

‘2전3기’ 광주FC, 시즌 첫 승 도전

내일 광주서 안양과 K리그1 3R

예열을 끝낸 광주FC가 ‘승격팀’ FC안양을 상대로 시즌 첫 승 사냥에 나선다.

광주는 내달 1일 오후 4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안양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3라운드 홈 경기를 갖는다.

앞선 두 경기에서 광주는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수원FC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한 광주는 전북현대와의 원정경기에서는 2-2를 기록했다. 승리는 만들지 못했지만 지지 않는 싸움을 하면서 승점 2점을 더했다.

광주는 앞선 무승부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홈팬들 앞에서 ‘승점 3점’을 쌓겠다는 각오다.

분위기는 좋다. 선수단의 많은 변화 속 전방 싸움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이정호 감독의 고민을 지운 해결사가 등장했다.

이정호 감독은 확실한 골잡이를 찾기 위해 ALCE와 리그 경기에서 고정된 라인업 대신 신항무, 오후성, 박인혁, 헤이스, 박정인, 문민서 등을 시험 가동했다. 그리고 오후성의 재발견이 이뤄졌다.

오후성은 지난 18일 부림 유나이티드(태국)와의 ALCE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멀티골을 기록했고, 23일 전북전에서도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투입

된 뒤 다시 한번 득점포를 가동했다.

광주는 매서운 발끝을 앞세운 오후성으로 안양의 골대를 겨냥한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선수들의 각오도 남다르다. 광주는 ACLE 일정을 병행하면서 숨가쁜 2월을 보내고 있다. 광주는 ALCE와 리그 모두 놓칠 수 없는 목표다.

이정호 감독은 두 마리 토끼 사냥을 위해 매 경기 선수단의 체력을 고려한 스쿼드를 꾸리고 있다.

부림과의 ACLE 경기와 전북전에서 김경민, 조성권, 박태준, 아사니 등 4명의 선수만 선발로 나왔고 다른 자리에는 변화가 있었다. 앞선 전북전에서는 오후성과 베테랑 안영규가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면서 체력을 비축했다.

광주는 홈팬들 앞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신고하고 오는 5일 치러지는 ACLE 16강 비셀 고베 원정에서 상승세를 잇겠다는 각오다.

한편, 광주는 안양전이 3·1절에 치러지는 만큼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했다. 광주는 독립운동가 박노준 선생의 후손 우민우 군을 초청해 시축을 맡길 예정이다.

또 네이버 스포츠와 함께하는 ‘직관 챌린지 이벤트’를 통해 선수단 친필 사인 유니폼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와플대학’ 홍보 부스를 마련해 팬들에게 외골을 선물할 계획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새로운 골잡이 오후성을 앞세워 3월 1일 안양에서 FC안양을 상대로 첫 승 사냥에 나선다. 앞선 전북전에서 골을 기록한 오후성(7번)이 조성권(2번), 아사니와 기뻐하는 모습. <광주FC 제공>